

나주, 내외국인 대학생 등 생활인구 유입 모색...관·학 협력 강화

나주시가 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국 최초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100호 보급을 통한 타지역 청년 근로자 유입에 이어 타지역 대학(원)생, 나이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기획예산실 인구가민정책팀, 동신대학교 학생취업지원처·국제교육원과

내·외국인 대학생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양 기관·대학 관계자들은 현재 나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 유학생, 내국인 학생 기숙사 거주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된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 체류하는 인구나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

형태를 뜻한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일정 시간 또는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까지 포함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등록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 사회통합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동신대 관계자들은 외국인 유학

생 졸업 이후 진로 모색을 위한 나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나주시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발굴한 전입 대학(원)생 정착지원금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기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통해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지역에 실거주중인 대학(원)생의 전입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동철 기자

장성군,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집중

장성군이 민선8기 후반기 '인구·돌봄' 분야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이 모여드는 장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족행복센터(장성을 영천로 199-10) 개관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900평(2957㎡) 규모로 읍시가지에 위치해 활발한 이용이 예상된다. 지하층은 댄스연습실과 밴드연습실을 갖춰 청소년기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1층에는 키즈카페와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구성해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배려했다. 2층은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지기관이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학

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지상 2층 규모에 커뮤니티룸,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북부지역 보육 공백을 해결해 줄 '백양사역 키즈레일 어린이집'도 실시설계 단계다. 백양사역 인근에 바닥 면적 300㎡ 규모로 지을 계획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

'장성공원'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달 장성공원 자연 생태 놀이터가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으로 정식 등록됐다. 장성 최초 사례로, 국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지원도 주목된다. △전남 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유광중 기자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2025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담양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굴해 담양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로 발굴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자농촌 구현, △담양향 향촌복지 실현, △문화 및 관광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담양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과제들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책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정민 기자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 하수 관련 현황 및 하수처리 단계별 전 공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하수 정화에 대한 여러 궁금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춰 견학을 진행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 공공하수처리장 목포대학교 견학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 학생 등 50여명이 최근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을 견학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영광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관내 하수 관련 현황 및 하수처리 단계별 전 공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하수 정화에 대한 여

러 궁금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춰 견학을 진행했다.

단일 반응조내에서 호기-무산소-혐기의 조건을 설정하여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SBR공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최종방류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생활체육시설(잔디축구장, 실외 골프연습장, 족구장) 및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TMS(수질연속자동측

정기기)을 견학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으로 습득한 부분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2024 영광방문의해를 맞아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및 영광E모빌리티엑스포에도 방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4억 원 증액한 8,5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총예산 8,50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4억 원(7.77%)이 증가하였다. 일반회계가 465억 원(6.72%)이 증가한 7,383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원(15.27%)이 증가한 1,125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100억 원, 세외수입 59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전출금 등 보전 수입 365억 원 등 총 614억 원 규모이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등 사회복지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각각 50억과 13억 편성

△특목지구 배수개선사업 14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지원사업 5억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0억 편성

△화순읍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26억,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25억, m-RNA 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사업 20억, 화순읍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 등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억 편성

△화순 동북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화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에 15억,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14억 원 등 환경 분야에 86억을 편성했다.

/이문수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